

1-24. 韓國産 등빨간거위벌레(딱정벌레目 : 거위벌레科 :
거위벌레亞科) 未成熟 段階 및 搖籃構造

박진영*, 이종은

안동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

*Tomapoderus*屬은 세계적으로 7종이 알려져 있으며, 대부분 구북구, 동양구에 분포한다. 우리나라에는 *Tomapoderus (T.) ruficollis* Fabricius (등빨간거위벌레) 단 1종이 서식하고 있다.

<형태적 특징>

卵(L: 0.8~1.2 mm, W: 0.8~1.0 mm, n=30)은 타원형이며, 노란색을 띤다.

幼蟲: 입을 말아서 만든 요람 안에서 성장하며, 종령(L: 11.0~12.0 mm, W: 2.0~2.5 mm, n=30)은 전체적으로 노란색을 띤다. Tubercle은 연약하며 강모가 산재되어 있다. Endocarina, galea, lacinia는 잘 발달되어 있으며, labral rods는 가늘고 긴 실린더 모양이며 epistom까지 연장되어 있다. Mandible은 2개의 apical teeth와 3개의 mandibular setae를 가진다. 蛹(L: 9.5~10.5 mm, W: 2.8~3.0 mm, n=30)은 노란색을 띤고, 요람안에서 蛹化하며, cerci가 잘 발달되어 있다.

搖籃(L: 30.0~35.5 mm, W: 8.0~10.0 mm, n=35)은 암컷이 기주식물 잎의先端部에서 基部로 움직이며 pitch를 계산하여 잎을 재단한다. 裁斷線은 잎의 主脈을 지나 기부쪽으로 90°꺾인 L자형태(L-shaped-cutting type)로 재단한 후, 뒷다리를 이용하여 나선형의 원통모양으로 잎의 선단으로부터 평균 18~20회 말아 올려 요람을 완성한다. 요람당 산란수는 조사된 요람(n=35)의 93%가 1개이며, 나머지는 2개가 산란된 것으로 파악되었다. 완성된 요람은 지면에 떨어뜨리지 않고 그대로 잎에 매달아 두는 습성이 있다. 기주식물은 느티나무(*Zelkova serrata*)와, *Zelkova*屬이다.